2024년 1월 31일 수요일 / 불기 2568년 현대불교

불국토 경주 남산에 오르다

❸ 경주 남산, 왜 불국정토 됐을까(2)

▶한줄 요약
신라 왕릉이 집중된 경주 선도산은 신라의 중요 성산(聖山)이었다. 토착신앙처였던 선도산은 불교가 전래되며 불국정토가 됐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은 산 정상에 조성된 '서악동 마애여래삼존입상'이다.



신라 神聖이던 선도산, 부처님 나라 되다



경주 선도산 '서악동 마애여래삼존입상'의 모습. 불교 전래 후 선도산이 토착신앙처에서 불국정토로 변화했음을 알려주는 문화유산이다.

신라인은 불교를 믿기 시작하면서 경주 선도산(仙桃山)과 단석산 꼭대기 바위에 부처님을 조성했다. 신을 섬기던 신라인들에게 산 정상에 우뚝 솟은 바위는 신과 소통하거나 신성이 깃든 신령한 바위로 섬겨졌을 것이다.

그러나 신라인들은 불교가 들어오면서 신 또한 윤회하는 존재로 천상에 태어난 중생임을 알게 된다. 하늘과 산과 바위에 스며들어 있던 절대적 신의 권위는 불교문화에 녹아들어 육도윤회를 하는 중생이 된 것이다. 당연히 신라인들이 섬기던 하늘의 신은 윤회하는 중생이란 의미에서 인간과 별반 차이가 없게 되고, 산과 바위의 성스러움에서 신성이 사라진 자리에는 부처님의 권위가 채워지는 것이다. 그렇기에 신라인들이 섬기던 신성이 깃든 산의 바위들은 부처님이 계신 불상으로 조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우선 부처님께서 말씀해주신 불교에서 '신'의 의미를 살펴보자.

수행을 열심히 해 최초로 하늘 세계에 태어난 중생이 있다. 최초로 하늘 세계에 태어난 중생은 홀로 있기에 다른 중생이 이 하늘 세계에 태어나길 갈망한다. 이후 다른 중생들도 하늘 세계에 태어나서 함께 생활하게 된다. 그러자 처음 하늘 세계에 태어났던 중생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 '내가 이 하늘 세계에 먼저 있었으니 하늘 세계의 지배자이며 하늘 세계에 태어난 중생들의 창조주이다.' 나중에 태어난 하늘 세계의 중생들도 처음으로 태어난 중생을 보았기에 창조주란 것에 동의한다.

이상은 〈범망경〉의 신에 관한 내용을 축약해 정리한 것이다. 불교에서 창조주는 중생이 착각해 만들어진 허상일 뿐이다. 중생은 수행을 열심히 해서 복덕이 가득 차면 윤회를 통해 하늘 세계에 태어난다. 육도윤회를 하는 것이다. 이때 우연히 많고 많은 하늘 세계 중 한 곳에 가장 먼저 태어난 중생은 자기보다 뒤에 태어난 하늘 세계 중생을 보면서 착각한다. '가장 먼저 있었기에 내가 혹시 창조주가 아닐까' 착각하는 것이다. 불교에서 하늘 세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의 28개의 하늘 세계가 있고 여기에 더해서 도리천의 하늘 세계가 33개가 더 있기 때문이다. 즉 무수히 많은 천국과 천당이 있는 것이다.

부처님께선 〈디가니까야〉의 〈삼명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어떠한 수행자(바라문)라도 하늘의 신(창조주)을 본 자가 있는가? 최초로 만트라(주문)를 만들고 만트라를 설한 자가 있다고 하자. 최초의 신의 소리를 만든 자나 이후 따라하는 그 어떤 자도 '나는 하늘의 신(조물주)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있는지 언제부터 있는지 이것을 알고 이것을 본다'고 말하는 자는 없다. 그 어떤 자도 하늘의 신(창조주)을 직접 본 자는 없다."

불자들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불교에서 신이란 부처님의 법을 듣고 불법과 불자를 보호하는 화엄성중과 옹호신장의 의미로 존재할 뿐이다. 창조주라는 절대적 존재는 있을 수 없다. 만약 창조주가 있다는 착각에 빠졌다면 헛것을 믿고 의지할 뿐이란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불교에서 신은 육도윤회해 천상의 세계에 태어난 중생이다. 불교를 통해 이것을 알게 된 신라인들에게 신이 거주하는 산과 바위는 불국정토와 부처님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다. 신성의 권위가 부처님의 성스러움으로 변모하는 것이다.

불교가 전래되기 전 경주에 있는 선도산은 신라 최고의 신이 거주하던 산이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14권에 보면 고려시대 김부식이 경험한 일화가 소개돼 있다.

김부식이 송나라의 사신으로 갔을 때 한 집에 선녀를 조성한 신상을 보게 된다. 이때 당나라 사람인 왕보가 김부식에 말한다. '옛날에 황실의 딸이 신라(진한)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신라의 시조 왕이 됐다. 황실의 딸은 신선이 돼 선도산에 머물렀는데 이 선녀의 상이다.' 또한 김부식은 송나라의 사신으로 고려에 온 왕양이 동신성모(東神聖母)에게 제사 지내는 글을 보았다. '현인을 잉태해 나라를 처음 세웠다.'라는 글이 있는데 동신성모가 곧 선도산의 신성(神聖)임을 알았다.

선도산, 신라왕릉 집중된 중요 聖山
불교 전래 후 신라인 토속신앙 대체
산 정상에 '마애여래삼존입상' 조성
신성한 바위들에 불상 조성해 예경

신라를 건국한 박혁거세의 생모로 전하는 '선도산신'의 이야기는 〈삼국유사〉의 '선도성모수희불사(仙桃聖母隨喜佛事)'에도 전한다. 선도성모는 서술성모(西述聖母)로 불리기도 한다.

신모(神母)는 본래 중국 황실의 딸인데 이름은 사소이며 신라 선도산에 와서 살면서 지선(地仙)이 됐다. 신모는 나라를 지키는 최고의 신이 됐으며 제54대 경명왕(景明王)은 신모를 대왕으로 책봉했다. 신모가 처음 신라에 와서 낳은 아들이 첫 임금이 됐으니 혁거세와 알영 이성(二聖)이 나온 것이다.

신라에서 선도산신은 혁거세의 어머니로 알려져 있었다. 이것이 고려가 건국된 이후 잊혔다가 송나라에서 김부식이 듣고 있다. 신라의 왕에게 대왕으로 책봉되기도 하는 선도산신은 불교가 전래되면서 퇴색되기 시작한 것 같다. 신이 부처님으로 대체되면서 선도산신도 잊힌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어찌 됐건 선도산은 신라에서 매우 중요한 산이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선도산 동쪽 줄기에는 진흥왕릉과 300여 기의 고분이 있고 바로 옆에는 삼국을 통일한 무열왕릉이 있는 대형의 서악동 고분군이 있다. 신라 왕궁 중심에 있는 대형 고분 이외 또 다른 대형 고분이 있는 곳은 서악동이 유일하다. 이를 통해 선도산은 신라 지배계층인 왕실과 연관된 중요한 산이었음을 알 수 있다. 왕실의 무덤은 신성한 산에 접해 조성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380m 높이의 선도산 꼭대기에 서악동 마애여래삼존입상이 조성돼 있다는 점은 의미심장한 상징성을 보여준다. 신을 섬기는 선도산신 신앙이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부처님이 계신 불국정토로 변모한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선도산 정상에 우뚝 솟은 바위를 신라인들은 선도산신의 신령스러움이 깃든 바위로 여기고 섬겼을 것이다. 이것이 불교가 전래되면서 이 바위에 아미타 삼존불을 조성해 선도산을 부처님의 불국정토로 변모시킨 것을 확인시켜준다.

선도산 정상에 있는 서악동 마애여래삼존입상의 본존불은 아미타 부처님으로 보이는데 높이가 6.85m이다. 두 협시보살은 우측 보살이 4.62m이고 좌측 보살이 4.55m로 모두 입상이다. 선도산 정상 부근에 솟아 있는 큰 바위의 한 면에 본존불상을 조각하고 좌우에 보살입상을 별도로 조성했다.

현재 본존불상은 바위의 암벽이 파괴돼 머리의 윗부분과 신체의 많은 부분이 훼손돼 있다. 코와 입술은 분명하게 확인돼 두드러져 보이는데 뭉툭한 큰 코에 부드럽게 다문 입술은 넓은 사각의 턱과 함께 토속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다. 수인은 두려움을 없애주는 시무외인과 소원을 들어주는 여원인으로 8세기 전후 불상의 특징을 보여준다.

협시보살은 둘 다 몇 개의 부분으로 파괴돼 계곡 가에 흩어져 있던 것을 최근에 복원한 것이다. 두 협시보살 다 웃는 모습이 맘씨 좋은 동네 청년 같아 소박하다. 왼쪽 협시보살은 총 4개의 부분으로 파괴돼 있었으며 머리의 삼산보관에 불상이 새겨져 있는데 관세음보살로 판단된다. 왼손은 밑으로 뻗어 정병을 들고 있고 오른손은 가슴 중앙에 손바닥을 보이며 들고 있다. 오른쪽 협시보살은 5개의 부분으로 파괴된 것을 복원한 것인데 떨어져 나간 왼쪽 팔과 가슴 부분은 찾지 못했다.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무언가를 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다. 왼쪽 보살이 관세음보살이면 오른쪽 보살은 대세지보살이 되며 본존불은 아미타불이 되는 것이다. 살짝 미소 짓는 모습이 역시나 동네 맘씨 좋은 청년 같다. 전반적으로 웅장한 중앙 본존불인 아미타 부처님은 소박하고 투박한 동네 아저씨 같고 상대적으로 왜소한 두 협시보살은 웃거나 미소를 띤 맘씨 좋은 청년 같아 친근한 불상이다.

신라인의 일상생활과 함께했던 어머니 신인 선도산신의 이미지가 동네 아저씨 부처님과 마음씨 좋은 청년 보살님으로 조성됐나 싶기도 하다. 서악동 마애여래삼존입상은 웅장하지만 친근한 신라의 부처님이다. 신라는 이렇게 신성이 깃들어 있던 산을 부처님의 성스러운 불국정토로 가꾸어 가기 시작한다.

〈경기 광주 빛고운절 회주 · 조계종 교육아사리〉

"신은 듯, 안 신은 듯 맨발같은 신발"
어싱 접지 슈즈
2024 신상출시

지구와 연결되는
EARTHing(접지) 효과
발볼 넓은 신발, 맨발 같은 신발
KSNS 적용 신발

어싱 슈즈는
발 볼이 좁거나 보통 넓이인 분들이
세련되고 날렵한 신발을
신고 싶을 때를 위하여
제작된 신발로 둘레길, 황토길,
캠핑용, 런닝용 신발로도 좋습니다.


베이지

어싱슈즈
특판가 (무료배송)
65,000원
※ 사은품 : 어싱 양말
NEW

베이지 블랙

어싱 트레킹화
특판가 65,000원 (무료배송)
※ 사은품 : 어싱 양말
※ 소재 : 도전특수고무 밑창 + 네오프렌(잠수복 재질)


NAVER 마하몰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